

“만물이 감동할 때까지 정진하겠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발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해 당선이후부터 지금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해 11월 취임해 지난 7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그동안 400여 회의 집견을 통해 1400여 명을 만났다. 지난 100일간의 발언을 중심으로 조계종과 한국불교, 그리고 우리 사회를 향해 제시한 총무원장 스님의 나침반을 돌아보았다. 또한 취임 이후 조계종과 총무원장 스님에 대한 교단 안팎의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살펴보았다.



90%를 넘는 중도들의 압도적 지지로 제33대 총무원장에 당선된 자승스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각종 언론매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종단발전 4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난 1월12일 신년기자회견. 불교신문 자료사진

“한모금의 물을 마실 때도 근원을 생각하라는 음수사원(飲水思源)의 고사를 거울삼아 임기 내내 맡겨주신 큰 책무의 근본을 잊지 않을 것이다.” - 2009년 10월22일 당선 기자회견.

“한국불교는 이제 사회와 소통하며 화합의 단초를 마련하고 무한한 사회적 책임을 통해 우리 민족과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2009년 11월5일 취임식.

• 용산 참사현장으로 첫 걸음

“용산은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다. 하루 속히 대립과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용산과 서울을 넘어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감동할 때까지 정진하겠다.” - 2009년 11월4일 용산 참사 현장 방문.

“대중사님께서는 정화를 천명하면서 이루고자 하신 불교의 정신회복과 민족문화중흥 등 과업을 이루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11월10일 정화 주역 청담·경산스님 부도 참배.

“시절연연에 따라 제국주의의 전리품이자 약탈대상이 되기도 하고 국보로 지정되고 또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등 영욕을 거쳤지만 13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지위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불자들에게는 신앙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 2009년 11월30일 '석굴암 백년의 빛' 특별전 개막식.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아직 할 일이 남아 계시다. 병석에서 일어나 마지막까지 좋은 성과를 이

“‘지난 시기 종단 일’로 국민들 염려 ‘참회’ 불교중흥은 교육 포교에... 모든 것 뒷받침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해야 종단도 변해 권한의 30%는 소통의 여지로 남겨놓아야 ”

“우리 종교인 모두가 소통과 화합, 그리고 나눔으로 세상을 보듬어갈 기원합니다. 누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종교인이 먼저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이념과 사상,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대화합의 길을 걸어갑시다.” - 2009년 12월16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표한 메시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단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또한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단성무이(丹誠無二)의 마음으로 그 꿈을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꿈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며,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

습니다.” - 2010년 1월1일 신년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해야 종단이 변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33대 조계종 총무원이 미래불교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가져달라. 종단 변화의 책임감을 갖고 봉사하고 복(福)을 짓는다는 각오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 달라.” - 2010년 1월4일 중앙종무기관 총무원 임명장 수여식.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 제33대 총무원은 종단 내부 문제에서 사회로 관심을 돌릴 것이다. 사회가 갈등하고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중재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종단 내외가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 2010년 1월12일 신년기자회견.

“지난 시기 종단에서 벌어진 분규와 갈등, 운영 미숙으로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국민과 불자들에게 상처를 안기고 염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깊은 참회를 드린다. 과거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2010년 1

월12일 신년기자회견. “우리 종단은 소통과 화합, 불교중흥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다. 불교중흥은 교육과 포교에서 나온다. 교육을 통해 종단의 백년대계를 만들 것이다. 교육과 포교에 모든 것을 걸고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 - 2010년 1월12일 신년기자회견.

“그동안 종단에서 여러가지 소임을 보면서 저의 제가 갖고 있는 권한의 70%만을 사용했다. 30%는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소통의 연(緣)을 남겨 놓은 것이다. 권한을 100% 행사하면 독재나 독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권한을 70%만 쓰고 30%는 소통의 여지를 남겨놓아야 한다.” - 2010년 1월19일 종무원 조희에서.

• 분별심 거두면 참세상이...

“개인 간 갈등, 사회적 갈등도 깊게 들여다보면 ‘나’에 대한 집착과 이기심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거두면 참 세상이 보입니다.” - 2010년 1월22일 성도제 메시지.

“동국인도 한마음 한뜻으로 종단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 불교중흥과 학교중흥을 위해 노력하자.” - 2010년 1월26일 동국포럼 강연서

“평생을 고통의 현장에서 행복의 길을 일러주신 부처님의 삶을 본받아 소통과 화합은 현장에서 실천해야 해결된다는 신념으로 오늘 방북의 길에 오릅니다.” 2010년 1월30일 평양 방문 발원문.

“남북교류는 같은 민족으로 불가피한 일이며, 이유가 없는 당연한 일이다. 민간교류의 필요성과 민간차원에서 할 일이 있지만 보다 큰 틀에서 해결해야 남북교류의 ‘시동’이 걸릴 것이다.” - 2010년 2월2일 평양방문후 귀국 간담회.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교단 안팎의 기대

신심과 원력 갖춘 선재 역할을 “수행중흥의 확립과 함께 사회적 소통으로 공동선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과 포교를 통한 불교중흥의 대전기(大轉機)를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모든 일은 신심과 원력 그리고 능력을 갖춘 선재의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 2010년 1월7일 정중예하 신년교서

종단 발전, 불교중흥 기원

“전례 없이 중도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총무원장에 당선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조계종의 발전 더 나아가 불교 중흥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 2009년 12월15일 조전회 동서 이명박 대통령 발언

약자 돕는데 더 적극적으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처럼

불교계가 앞장서서 사회 약자를 돕는데 더욱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 금년이 맹호(猛虎)해인만큼 총무원장 스님이 강한 추진력으로 중무행정을 통리(統理)하면서 소통과 화합으로 희망찬 불교미래를 열어 가는데 노력해 달라.” - 2010년 1월17일 원로의장 종산스님

소통과 화합, 사회에 필요한 가르침 “총무원장에 취임하시면서 소통과 화합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가르침이다.” - 2010년 1월5일 고건 사회통합위원장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불교 ‘기대’ “총무원 집행부와 재야단체가 활발한 논의의 장을 통해 접점을 찾고 뜻을 모아 간다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불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불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 1월13일 불교 NGO 대표와 총무원장 간담회에서 수경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일 정운찬 총리의 예방을 받고 평양방문과 용산참사, 세종시 문제 등을 화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남북문제 큰 틀에서 풀어야”

총무원장 스님, 정운찬 총리 예방 받고 당부

정운찬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신년인사차 예방했다. 정운찬 총리는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평양방문과 용산참사, 세종시 문제 등을 화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남북교류를 ‘큰 틀’에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며 남북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이에 정 총리는 “(총무원장 스님의 조언이) 고맙다”고 답했다.

이날 정 총리는 “지난해 말 용산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가 많은 도움을 줬고 고맙다”고 고마움을 표했으며, 총무원장 스님은 “서민들의 주거 문제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안정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가적 현안으로 부각된 세종시 문제와 관련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

민에게 잘 전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총무원장 스님은 “정부가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 (세종시 문제는) 정부의 숙제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국민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발생한 지관스님 폭행사건과 관련해 정 총리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밖에도 이날 예방에서는 10·27법안, 국립공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정 총리의 예방에는 김태영 국방부장관,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수행했으며, 기획실장 원담스님, 재무부장 상운스님, 문화부장 효탄스님, 사회부장 혜경스님, 사서실장 경우스님이 배석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승려 분한신고 실시 공고

승려 분한신고 시행규정 제2조, 제3조 제1항에 의거 본종 모든 재적승려를 대상으로 제7차 분한신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간내에 전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고기간 : 2010년 3월 1일 ~ 4월 30일
2. 신고대상 : 종단 소속 모든 재적승
3. 신고장소 : 재적교구본사
4. 신고서류
 - 1) 분한신고서 1부(말사/교구본사/총무원에 양식비치)
 - 2) 신상명세서 1부(소정 양식)
 -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 4) 재적등본 1부(단, 재적등본은 출가년도 이후 분가로 인한 독호적, 호주승계, 본적지 변경 등에 의해 호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동전 호적(재적등본)을 추가 제출)
 - 5) 주민등록증·초본(주소이력 포함됨) 각 1부
 - 6) 주민등록증 복사본 1부
 - 7) 현 승려증
 - 8) 구비서류 부착의 별도 증명사진 3매 - 구족계 수지자(3cm×4cm, 대가사/장삼 수한 사진) - 예비승의 경우(3cm×4cm, 만 의/장삼 수한 사진)
 - 9) 유언장 1부(자필 및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 첨부)
 - 10) 중여 계약서 1부(소정 양식)
 - 11) 사인중여 계약서 1부(소정 양식)
 - 12) 분한신고 제반 수수료 30,000원
5. 신고방법
 - 1) 신고인은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의 확인을 받고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합니다.
 - 2) 재적교구본사가 직할교구인 경우 직할교구 사무처로 신고하며 직할교구소속 승려 이외에는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합니다.
 - 3) 사찰주지 또는 은사스님은 신고인의 신고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날인한 후 신고인으로 하여금 신고인의 재적교구본사로 신고토록 합니다.
 - 4) 재발급된 승려증은 신고한 재적교구본사에서 교부받아야 합니다.
6. 주의사항
 - 1) 신고기간내에 신고치 않는 경우 승려자격에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한신고 시행규정 제 17조에 의거 승적을 자동 말소합니다.
 - 2) 승적 말소란 종단 재적승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향유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 3) 신고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7. 문 의 처 : 총무원 총무부 사찰교무팀 또는 각 교구본사 총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
☎ 02)2011-1704~17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불기 2554(2010)년 2월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2010학년도 1학기 수강생 모집안내

▶ 모 집 과 정			
과정명	분 야	세 부 과 정 명	
특별 교육	스포츠	골프매니지먼트/티칭지도사, 어린이스포츠산악 전문강사	
	예술·문화	설장구해제과정(앉은반, 선반), 야유르베다, 아트마켓&아트테크, 홍신선교수의 시창작반, 한국전통무용(입춤), ※ APP(에스테틱전문가),	
	교육·철학	명리학회지도사, 명상심리치유사, FNT(사성제)와 자비명상전문자격과정	
전문 자격증	경제·경영	FX(외환) 재테크과정, 부동산재테크, SCAE국제바리스타 커피전문강사	
	대평교협	가요전문지도사, 동화연구지도사, 미술심리지도사, 북아트지도사, 색채심리지도사, 어린이인화지도사, 주산활용수학교육사, 한문지도사	
	민간자격/국가공인	두뇌개발교육지도사, 국제아로마테라피스트DIY창업반, 선유가·선유도, 약용식물관리사, 지문평가사, 표현예술치료(1~6단계), ※ PIA민간조사사(탐정)최고전문가, ※ TESOL	
불교 문화	한국방과후 교육연합회	방과후 수학지도사 양성과정, 방과후 수학지도사 중등과정, 방과후 과학실험지도사, 방과후 한국사논술지도사	
	불교전문반	밀교사상, 기신론사상, 참선수행, 반야중관사상, 법화전대사상	
교양	불교연구	불교무용, 불교상담사, 불교영어, 불교의식실용반, 불교입문기초과정, 다석화·선화, 불교정통꽃꽂이, 불교한문, 불교미술(불화), 비교종교, 참선수행	
	동양철학	기문정명화, 기문정명학전문가, 사주명리학, 사주명리전문가, 명리학, 성명학, 생활풍수, 육임, 육임전문가, 인상과개운, 하라이수, 현공풍수	
Cyber	문화예술	가요강좌, 고전전통무용, 기본한문, 시낭송전문가, 이미지메이킹을 통한 자기개발, 문인화, 사군자, 서예, 전통민화지도사, 전통민화실기, 전통생활지수, 한지화	
	자격증	주산활용수학교육사	
접수기한	2010년 2월 26일(금) 강좌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 및 접수처	사회교육원 학사운영실 ☎02)2260-3728~3730
		접수 및 납부방법	① 인터넷 수강신청 후 가상계좌 이체 ② 인터넷 수강신청 후 방문 카드결제 (BC, 국민, 삼성, 신한)

http://edulife.dongguk.edu

dongguk UNIVERSITY